

##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포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한 생명을 소중히, 한 영혼을 귀중히
- ◎ **전도주일:** 오는 8월 24일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힘쓰시다.
- ◎ **봉사활동:** 9월 중 학생들 방학 때 공동체별, 선교별로 봉사활동(Outreach,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떠날 성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예고:** 8월 셋째 주일(8월 17일)은 십일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 ◎ **공동체:**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배와 함께 성도의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 ◎ **모임:** 선교부 모임이 예배 후 유아실에서 있습니다(선교부장: 이광희 장로).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교우소식

- ◎ **득손:** 조현구 집사(추미선 권사) 가정 손녀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 **수술:** 이기중권사(박병민 장로) 갑상선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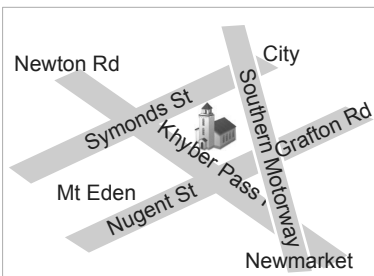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 오시는 길



###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8월 10일 주일 16권 32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 성경은 신앙의 기준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 중에서 '세계화' 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화' 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캐나다의 한 칼럼니스트가 '세계화'란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이다" 라고 자신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즉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영국인이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죽었고, 그녀가 타고 있던 자동차는 독일제 벤츠였으며, 그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벨기에인이었습니다. 그녀 옆자리에 동승한 사람은 이집트 남자 친구였고, 자동차 사고의 원인이 된 파파라치들은 이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일본제 혼다였으며,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수술한 사람은 미국인 의사였고, 수술할 때 사용한 마취제는 남미산이었습니다.

다이애나 사후 세계 곳곳에서 배달된 조화는 네덜란드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기사들이 한국산 삼성모니터에 뜨고 기사를 대만산 로지텍 마우스로 클릭해서 다운 받았다고 합니다. 한 여성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개입한 것, 이것이 바로 '세계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화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 현상은 환영할 만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화의 단점은 다민족, 다문화에 살다보니까 참과 거짓에 대한 혼돈 속에 살아가는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통 문화이고 무엇이 유입된 문화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짝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는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모여와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풍습들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신에 불과한 알팍한 것들이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리성을 경미한 첨단과학 앞에 믿음의 전제되는 우리 신앙은 과학적이 못하다고 무시당하는 듯한 현실입니다. 정말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이 뒤 바뀐 세상입니다.

이런 세계화의 현실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고 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임을 삶을 통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진실과 거짓의 신앙에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 전 주 반주자
- 예배로 부름 시편 117:1-2
- 개 회 송 찬양대
- 참회의 기도 다함께
- ※ 찬 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 ※ 성 시 교 독 71. 이사야 55장
-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 찬 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 대 표 기 도 박제용 장로
-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5:1-7
- 찬양대 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 설 교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태한목사
- 찬 송 496장. 새벽부터 우리
- 헌 금 기 도 인도자
- 교 회 소 식 인도자
- ※ 응 답 송 여기에 모인 우리
- ※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김영옥 권사  
 요나서 4:10-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정훈 형제

◎ 8월 교회악기

월샷기도회: 8월 1일(금)  
 전도주일: 8월 24일(주일)  
 선교회주관 수요예배: 8월 27일(수)

◎ 8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김석목/김윤자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김광영 집사  
 다음 주일: 고성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8월 20일 수요: 김태만 집사  
 8월 20일 애찬: 박혜숙 권사  
 8월 24일 주일: 정진택 집사  
 8월 24일 청년부: 이민우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2. 진리의 말씀에 바로서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현혹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추위에도 신앙의 열정이 식지않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도록.
4. 육신의 연약함과 비자, 비즈니스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함이 있도록.

**8월 새벽기도회 본문**

15일: 마가복음 14:32-42      기도만큼 확실한 준비는 없습니다  
 22일: 마가복음 15:33-41      죽음으로써 생명 주신 구원의 은혜  
 29일: 디도서 2:9-15            근본적인 변화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인 중보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는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의 소식입니다).

**주간에서 평안하시지요?**

소식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곳은 항상 그렇듯이 봄이 되면 집시 마을마다 장년들은 일을 찾아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떠나고 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떠난 후 생계를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쭈거나 산 버섯을 따서 생활을 유지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생활 방식은 부모들을 따라가니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부도 초등학교만 나와 자기 이름 정도를 겨우 쓸줄 알면 된다고 학교를 보내지 않고 12살이 되기 무섭게 돈벌이를 내 보냅니다.

요즘은 방학이라 아이들은 대부분 산 버섯을 따러 가서 낮에는 거의 집에 없습니다. 장년들이 빠져나간 교회도 표가 나고, 몇 몇 가정은 해외로 일을 떠났다가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이곳 친척들을 불러서 노동일을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집시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여름 성경학교인데 그동안 준비를 하여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저는 후속치료와 몸 다른 부분의 이상 증세로 안식년 차 한국에서 몇 개월 휴식 후 이곳 사역지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가 계시는 용인과 기도원을 오가며 쉼과 사역준비를 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해주시는 선교동역자님들께 일일이 다 연락 드리지 못하지만 늘 기도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쉼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미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집시 청소년 제자 양육성경공부가 잘 진행되도록.
2. 아르제쉬에서 공부하는 집시 아동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도록.